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주간 전남농업

VOL. 233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5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사료용 벼 '영우', 5월 하순 파종 적기

정책동향 및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모내기철 농기계 빌려드려요"

해외 농업정보 미국 식음료업계, 달콤한 고구마에 빠지다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서울 시민들 찬사 이어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 6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1 ~ 15도, 최고기온 : 21 ~ 25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2 ~ 6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 7

- 건고추 재배의향 및 가격전망
-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2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6

- 우리 딸기, 더 맛있는 품종·상태로 수출한다
- 일본 입맛 사로잡은 아스파라거스, 수출 길 오르다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20

- 사료용 벼 '영우', 5월 하순 파종 적기
- "멜론, 수경 재배로도 잘 자라요"
- 열일하는 드론, 풀사료 적기파종에 효자 노릇 톡톡!
- 저온·고온·염류집적 등 작물 스트레스 줄이는 미생물 개발
- "온실 짓기 전, 그늘 분석 프로그램 이용해 보세요"
- '들깨, 힘들이지 말고 기계로 심으세요'
- 고랭지 재배에 유리한 콩, 따로 있다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 28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한국 버섯재배기술 공유로 필리핀 소농의 소득증대
- 전남농기원, 원예종묘 국제 품질인증 시스템 현장실증 나서
-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서울 시민들 찬사 이어져...
- 상추 유전자원 분석해 육종소재 발굴한다
- '전국 팔도 버섯' 한자리에서 만나 보세요
-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상품 10개 선정
- 전남농기원, 농식품 가공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39

- 여수시, “모내기철 농기계 빌려드려요”
- 여수시, ‘친환경농업단지 올해 첫 모내기’...‘풍년 기원’
- 순천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당부
-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쌀’ 전남 10대 고품질쌀 평가 ‘최우수상’
- 곡성군, 우리 논에도 우렁이 각시 다녀갔나?
- 곡성군, 농업도 안전제일!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
- 화순군, ‘복숭아 봉지 씌우기 전’ 약제 방제 당부
- 화순군, ‘자연속愛 순미’ 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
- 해남군, ‘한눈에 반한 쌀’전남 10대 브랜드쌀‘대상’
- 영암군, 벼 남은 모 알선창구 운영
- 무안군, 황토랑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10년 연속 선정
- 함평군, 나비쌀 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쾌거’
- 함평군, 친환경 농업 위해 새끼우렁이 76톤 공급
- 장성군, 농번기 든든한 한끼 ‘마을공동급식’으로 해결
- 신안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 신안군, 농기계 신청하신 분 !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8. 해외 농업정보 ····· 55

- 미국 식음료업계, 달콤한 고구마(Sweet Potatoes)에 빠지다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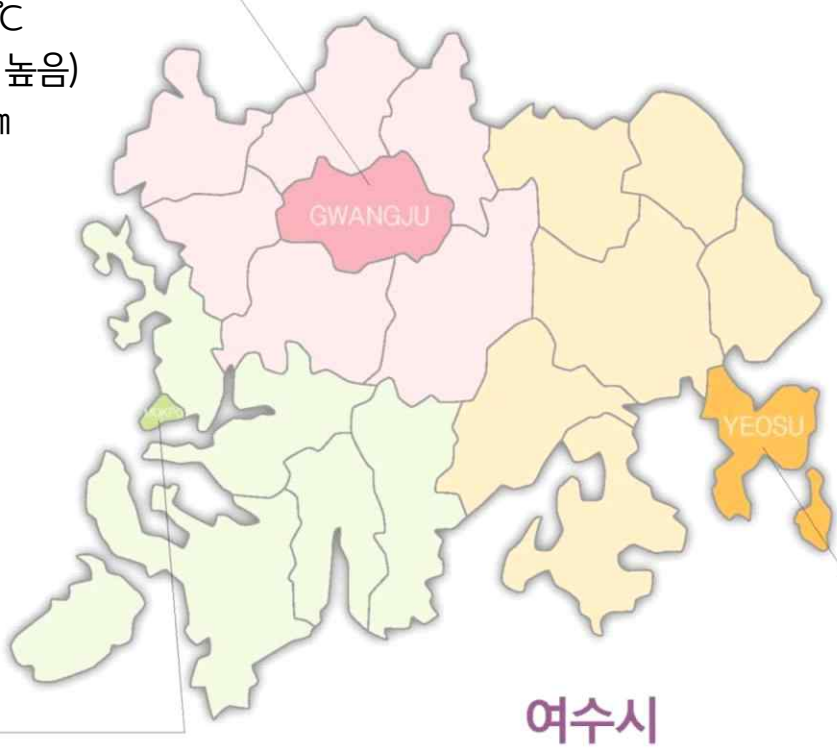
9. 농식품 빅데이터(법령)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 58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0.1℃
  (평년대비 2.2℃ 높음)
- 최고기온 : 25.3℃
  (평년대비 1.6℃ 높음)
- 최저기온 : 14.9℃
  (평년대비 2.1℃ 높음)
- 강 수 량 : 3.5㎜



목포시

- 평균기온 : 18.8℃
  (평년대비 1.9℃ 높음)
- 최고기온 : 22.6℃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15.0℃
  (평년대비 1.9℃ 높음)
- 강 수 량 : 3.1㎜

여수시

- 평균기온 : 18.8℃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21.9℃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15.7℃
  (평년대비 1.6℃ 높음)
- 강 수 량 :4.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고추 재배의향 및 가격전망

재배의향 : 201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평년보다 감소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4. 20.), 201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계속된 건고추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면적 함수 분석결과, 2019년산 고추재배면적은 2018년산 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2019년산 재배면적은 2만 9,510~3만 240ha로 전년보다 2~5% 증가하나 평년보다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2019년산 건고추 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상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수확초기 높은 가격을 기대한 농가가 많아 정식은 전년보다 다소 앞당겨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약보합세 전망

- 5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전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 전망 : 2019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2019년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17% 증가한 27,689ha이다(통계청, 4. 19. 발표).
- 2019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기상여건이 양호 하여 평년보다 4% 많은 1,339kg/10a,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모형으로는 2% 증가한 1,307kg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2019년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19~ 22% 증가한 36만 2천~37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 다만 남은 생육기간 내에 발생하는 기상 변화에 따라 생산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전망 : 5월 가격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5월 깐마늘 평균도매가격은 저장마늘 재고량 감소 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호조로 2019년산 햇마늘 출하가 앞당겨지고,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낮고 전월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전망 : 2019년산 양파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8년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 3% 증가한 21,756ha로 나타났다 (통계청, 4. 19. 발표).
- 조생종과 중만생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1%, 17%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 9%, 2% 증가하였다.
- 2019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육상황은 정식 후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병해충 발병률이 낮아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예상 단수를 적용한 2019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산량은 평년 대비 12~15% 증가한 126만 5천~129만 9천 톤 으로 전망된다.
- 다만, 중만생종양파 생산량은 향후 기상 및 병해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전망 : 5월 가격 평년 대비 보합세 전망

- 5월 양파 총 공급량은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1만 6천 톤 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공급량이 평년보다 증가하나, 정부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평년(660원) 대비 보합세가 전망된다.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전망 : 겨울대파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4. 20.), 4~6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파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월 (-1.6%)보다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 지역별로 여름철 주 출하지인 경기 노지대파, 강원 고랭지대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호남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겨울대파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전남 신안과 진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 및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약세 전망

- 5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6% 감소할 전망이다. 충청지역의 경우 재배면적이 늘어 출하면적이 증가 하겠으나, 경기와 영남지역, 겨울대파 포전정리가 이루어진 호남지역의 출하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5월 단수는 기상 여건 호조로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대파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나,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은 1,000원/kg(상품)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5. 13.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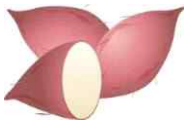
쌀(일반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0kg	49,180	49,18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295	44,520	39,933	↑ 23.2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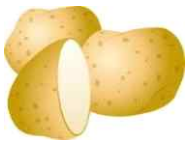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35kg	194,200	194,2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0,200	178,200	154,667	↑ 25.6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kg	36,800	35,400	↓ 1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850	43,200	29,827	↑ 23.4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0kg	42,400	46,600	↓ 3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4,050	68,600	46,847	↓ 9.5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kg	3,600	3,640	↓ 5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90	7,625	6,142	↓ 41.4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8kg	4,500	4,800	↓ 2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50	5,900	5,056	↓ 11.0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0개	29,200	30,667	↓ 1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083	32,750	28,965	↑ 0.8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0개	12,200	11,400	↓ 2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250	16,600	11,987	↑ 1.8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60kg	1,147,200	1,147,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7,200	1,150,000	723,333	↑ 58.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kg	49,400	31,400	↑ 1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350	42,150	48,197	↑ 2.5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0kg	135,000	135,000	↓ 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147,500	147,500	↓ 8.5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0kg	13,300	16,200	↑ 13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750	17,900	15,913	↓ 16.4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0kg	32,200	37,400	↑ 8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950	36,900	32,867	↓ 2.0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kg	1,290	1,220	↓ 1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80	1,480	1,645	↓ 21.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5kg	20,400	18,000	↓ 1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250	24,650	19,697	↑ 3.6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kg	13,400	13,8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00	-	14,147	↓ 5.3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kg	20,800	22,400	↓ 1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050	24,250	21,947	↓ 5.2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5kg	19,000	22,000	↓ 1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800	23,000	18,327	↑ 3.7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kg	42,600	37,600	↑ 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800	38,750	40,666	↑ 4.8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5kg	53,800	48,800	↑ 10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50	36,200	42,987	↑ 25.2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kg	31,200	32,6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650	34,800	34,907	↓ 10.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30kg	499,200	496,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8,000	524,667	↓ 4.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kg	12,800	12,400	↓ 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100	13,800	12,613	↑ 1.5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2kg	7,400	6,800	↓ 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225	7,500	7,997	↓ 7.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0g	7,906	7,963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27	8,017	7,138	↑ 10.8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00g	1,988	1,999	↑ 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9	1,841	2,023	↓ 1.7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kg	5,107	5,304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38	4,929	5,492	↓ 7.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30개	5,297	5,350	↑ 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94	4,361	5,775	↓ 8.3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13)	2주일전 (4/29)	전년대비
1L	2,622	2,622	↑ 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2	2,516	2,541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5. 13.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447	5,535	5,655	↓ 1.6	↓ 3.7
거세	6,871	6,771	7,041	↑ 1.5	↓ 2.4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66	3,316	3,248	↓ 1.5	↑ 0.6
수	4,031	4,030	4,047	0.0	↓ 0.4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71	3,314	3,5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	↓ 7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7	435	29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5	↑ 50.2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4	379	40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	↓ 5.9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375	1,450	1,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2	↑ 17.3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68	1,010	75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2	↑ 27.7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1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우리 딸기, 더 맛있는 품종·상태로 수출한다

- 새 품종 '아리향 · 금실' 안정적 수출... 한국산 이미지 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출용 딸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존 품종을 대체할 새 딸기 품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 우리나라 딸기 수출은 90%가량이 '매향' 품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덜 익었을 때 수확해도 천천히 성숙하고 물러짐이 적은 '매향'의 특징이 수출에 알맞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지 후숙(익힘) 과정에서 숙성과 착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새 품종 수출을 추진했다.
- 농촌진흥청이 이번에 수출한 딸기는 조직이 단단하고 크기가 큰 '아리향'과 당도와 향이 우수한 '금실'품종이다. 충분히 익은 상태의 맛 좋은 딸기를 물러짐 없이 수출하기 위해 '수확 후 관리 일관시스템 기술'을 적용했다.
- 이 기술은 ①수확 후 예비냉장 ②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 처리 ③기능성 MA 포장재 적용 ④수출 컨테이너 온도 2℃, 환기구 개폐는 1/3로 조절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딸기 물러짐 방지와 곰팡이에 의한 부패를 이전보다 15~20% 정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개발한 기능성 MA 포장재로 딸기의 증산과 호흡을 억제해 전보다 신선도 유지 기간을 3~4일 더 연장할 수 있었다.

- 수출 딸기를 홍콩 현지에서 판매한 결과, 두 품종 모두 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마트 2곳과 재래시장에서는 4일 만에 모든 상품이 판매됐다. 현지 업체는 초미숙과 매향을 대체할 아리향, 금실 같은 품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 정도 품질이면 홍콩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 이번 수출의 의미는 수출용 새 딸기 품종을 발굴하고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적용해 우리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있다.
- 특히, 딸기가 물러지는 시기인 4월에도 동남아 시장에 선박 수출이 가능함을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봄철 딸기 수출 확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김지강 과장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산 딸기의 품질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맞춰 선도 유지 기술을 보급하고 국산 딸기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일본 입맛 사로잡은 아스파라거스, 수출 길 오르다

- 7일, 강원도 양구산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 기념식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고급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양구산(産) 아스파라거스의 일본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7일, 강원도 양구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 강원도농업기술원, 양구군과 함께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황규석 차장, 강원도 최문순 지사, 조인묵 양구군수를 비롯해 아스파라거스 생산 농업인 및 수출업체 등이 참석했다.

- 전국적으로 재배면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아스파라거스는 85헥타르(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다. 양구, 춘천 등 강원도 지역이 전체 재배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소비량도 급증하여 매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2017년도 수입량은 724톤으로 2012년 290톤 대비 2.5배 증가했다.

- 하지만 국내 아스파라거스 성출하기인 4~5월 판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았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14년부터 내수가격 안정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을 위한 재배, 수확 후 관리 등 기술개발과 함께 시범수출을 실시했다.

- 2015년 한국산 아스파라거스 3톤이 일본으로 본격 수출된 이후 매년 수출량이 증가해 2018년에는 19여 톤을 달성했다. 아스파라거스의 규격, 신선도 면에서 일본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스파라거스 수출 확대를 위해 재배부터 수확 후 관리, 안전성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 집중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전국 아스파라거스 생산자연합회 김영림 회장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일본 수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며 "올해 4월 16일 춘천지역의 아스파라거스 1.6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0톤이 수출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목표 25톤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아스파라거스 수출업체 승운무역(대표 지현호)과 이덕규(춘천시), 정광섭(화천군), 전영선(양구군) 등 아스파라거스 재배 농업인이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조성주 과장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등 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사료용 벼 '영우', 5월 하순 파종 적기

- 늦어도 5월 30일까지 파종해야... 생산량, 사료가치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사료용 벼 품종 '영우'를 담수직파로 재배할 경우 늦어도 5월 하순까지는 파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우' 파종 시기에 따른 사료 생산량을 시험한 결과, 5월 30일 파종까지는 헥타르(ha)당 20톤으로 비슷했지만 6월 9일 이후에는 16톤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 '영우' 이전에 육성된 '목우'와 '녹우' 품종은 5월 20일까지가 파종적기이지만 '영우'는 이보다 열흘 늦게 파종해도 생산량이 유지됐다.
- 사료 가치가 높은 이삭 생산량 비율은 5월 20일 파종에 비해 5월 30일 파종에서는 7% 감소에 그쳤지만, 6월 파종에서는 23~27%나 감소했다.
- 가소화영양총량(TDN)도 5월 20일과 30일에 파종하면 헥타르 당 15톤 정도로 비슷했지만, 6월 9일과 19일 파종에서는 11~12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 논 타작물 재배는 논에 벼 대신 밭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심어 쌀 적정생산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권장되고 있다.
- 2015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영우'는 생산성이 높고 영양 가치가 우수한 사료용 벼 품종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멜론, 수경 재배로도 잘 자라요"

- 국내 육성 13품종 재배 실험...잎 · 과실 장해 없고 맛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쉽고 편하게 맛 좋은 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수경재배(물가꾸기) 기술을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은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가공해 만든 코이어 배지를 활용해 국내에서 육성한 멜론 소과종 1종, 중과종 3종, 대과종 9종, 총 13품종을 대상으로 수경재배 실험을 진행했다.
- 그 결과, 시험 품종 모두 잎이나 과실이 장해 없이 자랐으며, 네트(그물무늬)의 형태나 모양 등이 정상적으로 나타났다.
- 특히 '히어로' 등 6품종은 단맛, 육질, 외관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수출 규격(1.5~2.0kg 기준)에 알맞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히어로', '달고나', '미라클', '아이비', '얼스크라운' 품종은 당도가 12브릭스(°Brix)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슬란'은 과육이 단단하고 식감이 좋았으며, '아이비'는 과실이 크고 외관이 우수했다.
- 이번 연구에서 양액(영양액)은 생육초기, 착과기(열매달리는 시기), 과실비대기(열매 커지는 시기), 수확 전 각각 EC 1.8, 2.0, 2.2, 2.3dS·m-1의 농도로 공급했다. 또한, 배액률은 생육 초기, 중기, 후기 각각 20%, 30%, 10%에 맞춰 공급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강진 소장은 "코이어 배지를 활용한 수경재배는 멜론 농가의 고질적 문제인 토양전염성 병해충을 차단하고,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열일하는 드론, 풀사료 적기파종에 효자 노릇 톡톡!

- 드론 파종 기술 적용... 8일, 동계 사료작물 첫 수확 연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보급 확대를 위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 재배에 드론 기술을 적용했다.
- 국내 사료작물 생산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파종과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종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지난해 9월, 전라남도 나주의 10헥타르(ha) 규모 농가 재배지에 종자의 종류와 파종방법 등 조건을 달리해 동계 사료작물 생산에 드론 활용성을 검토했다.
- 그 결과, 분무살포기(미스트기) 파종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고 장시간 작업이 가능해 작업능률이 높았다.
- 또한 드론 파종(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은 벼를 수확하기 전에 종자를 뿌리는 '벼 입모중 파종'에 활용도가 높았다.
- 드론에서 발생하는 하향풍은 종자가 벼 사이의 토양에 안착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 재배지가 분산돼 작업량이 많은 경우와 토양에 수분이 많아 기계 파종이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적기파종이 가능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파종기술 개발과 함께 광학센서를 통한 토양환경과 사료작물 생육상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드론의 자율비행을 통한 정밀재배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저온·고온·염류집적 등 작물 스트레스 줄이는 미생물 개발

- 토마토에 적용... 저온 피해 14% 고온 피해 22% 줄고 수확량 18% 늘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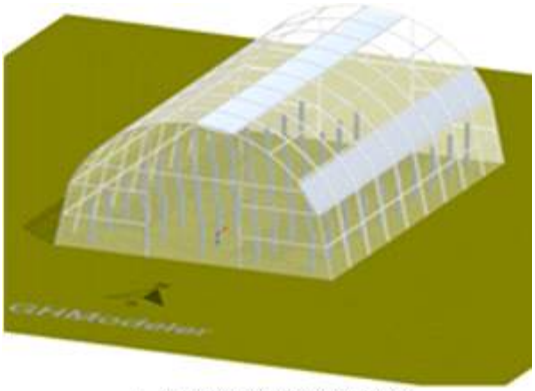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저온, 고온, 염류집적 등 시설재배지에서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했다.
- 시설재배지는 반복적인 비료 사용과 집약 재배, 온도 변화 등으로 고염류, 병해충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 스트레스가 발생해 안정적인 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많다.
- 이번에 개발한 T01R-27 균주는 토마토 뿌리 주위에서 분리한 페도박터(Pedobacter) 속의 미생물로, 작물이 받는 염류와 온도 변화 등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시설재배 토마토에 T01R-27 균주 배양 희석액을 뿌리 주위에 관주 처리한 후 저온(10℃)에서 4일 간 유지한 결과, 미생물을 처리하지 않은 토마토보다 피해가 14% 줄었다. 고온(40℃)에서는 피해가 약 22% 줄어들었다.
- 염류 농도가 높은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미생물 배양 희석액을 정식 후 2주 간격으로 처리하는 농가실증 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존 재배방법에 비해 토마토 수확량은 18%, 오이는 19%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의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미생물 비료 규격 목록 등록과 기술이전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은 시설재배 작물의 스트레스 피해를 줄여 안정적인 작물 생산에 도움을 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온실 짓기 전, 그늘 분석 프로그램 이용해 보세요"

- 계절, 시간, 방향 따라 분석... 생산성 예측에 도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단동 비닐 온실 내부에 발생하는 그늘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온실 그늘 분석 프로그램(GHModeler-shade)'을 개발했다.
- 1%의 광량(빛) 증가는 1%의 수량 증대로 이어진다고 할 만큼 온실 내부로 투과되는 빛의 양은 농산물 수확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실 그늘 분석 프로그램

- 이처럼 온실을 지을 때 그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농가에서는 온실을 완성하고 난 뒤에야 내부 그늘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 불편함이 컸다.
- 이번에 개발한 온실 그늘 분석 프로그램은 시설의 방향, 위도, 골조, 차광막, 계절과 시각에 따라 발생하는 그늘의 양상을 3차원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온실 전체 또는 임의 지점에서의 입사각, 일조(햇빛 비침) 분석 결과와 함께 골조율과 그늘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 골조율은 온실 바닥 면적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골조 그림자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늘지수는 태양의 입사각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그림자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 또한, 작물 종류를 고려해 비닐 온실 내부의 작물 배치를 설정한 뒤, 빛 비침을 분석할 수도 있다
- 연구진이 내재해형 단동 비닐 온실(10-단동-5형)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결과, 그늘지수는 12월 중순 오전 8시, 10시, 오후 12시에 각각 12.7%, 14.3%, 21.8%로 나타났다.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면 9.3%, 14.5%, 14.1%였다. 예를 들어 키 작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동일한 온실 규격을 동서 방향으로 설치한다면 남북 방향보다 내부 그늘이 적게 발생해 작물 생육에 더 유리하다.
- 온실 그늘 분석 프로그램은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영농기술→영농활용정보→시설설계도→설계지원프로그램)'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강진 소장은 "온실 내부에 발생하는 그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작물 재배 계획을 수립하거나 생산성 예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온실 그늘 분석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들깨, 힘들이지 말고 기계로 심으세요’

- 채소정식기 사용... 종자수량 50% 줄이고 재배 수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들깨 씨를 직접 뿌리는 재배방법 대신 모종으로 어린 들깨를 키워 채소정식기로 심는 방법을 추천했다.
- 들깨는 씨가 매우 작아 포장에 직접 심으면 기온 조건에 따라 발아율이 떨어지거나, 잡초로 인해 초기 생육이 어렵다.
- 연구 결과, 들깨 씨를 5월 말~6월 초 포트 수 128개인 트레이에 파종해 23일 동안 모종을 키웠을 때 기계정식하기에 가장 좋았다.
- 포트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뿌리 발달에 영향을 주어 생육이 부진할 수 있다. 128공 트레이에 파종했을 때 뿌리 매트가 잘 형성돼 기계정식에 유리하다.
- 모를 기를 때는 트레이에 모판흙을 채운 뒤 손가락 한마디(2~3cm) 깊이로 판 구멍에 씨를 놓고 흙을 덮어준다. 물은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하루에 2~3회 정도 준다.
- 수도용 모판흙은 중량, 준중량, 경량으로 구분하는데 경량에서 들깨의 생육과 뿌리 성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성분으로 질석(35~45%), 코코피트(25~35%), 황토(15~25%) 성분을 포함된 것이 좋다.
- 들깨 줄기가 10~12cm 정도 자랐을 때 기계로 심는데, 128공 트레이 전용인 전자동정식기(꽂아내기식)가 제일 적합하다.
- 반자동 정식기는 트레이 크기에 제약은 없지만 손으로 모종을 뽑아 기계에 넣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자동식에 비해 번거롭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고랭지 재배에 유리한 콩, 따로 있다

- 농진청, 고랭지에 적합한 우리 콩 90품종 선발, 재배기술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랭지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랭지에 잘 적응하고 재배하기에 유리한 우리 콩 품종을 소개했다.
- 농촌진흥청은 평난지(강릉)와 고랭지(대관령)에서 우리 콩 147품종의 수량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고랭지 적응성이 우수한 90품종을 선발했다.
- 고랭지(해발 800m 이상)에서 재배한 콩은 평난지에서 재배한 콩과 비교해 이소플라본 함량도 높았다.
- 이소플라본은 콩에 다량 함유된 기능성 물질로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 감소, 폐경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랭지의 큰 일교차는 성숙기에 접어드는 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대풍콩'은 평난지(3,654㎍/g) 대비 고랭지(4,246㎍/g)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최대 1.2배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난지에서 많이 재배하는 대원콩(2,423㎍/g)과 비교해 약 1.7배 높은 수치다.
- 고랭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인 1주 2본보다 1주 3본으로 높여 파종하면 수량도 15% 증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구본철 소장은 "고랭지 재배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 연구에 집중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지키기 일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및 홍보안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국내 유입차단, 발생시 신속대응 조기근절 -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간 추진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국경검역)**

  i)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ii)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iii) 양돈농장주·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iv)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

- **(국내방역)**

  i)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제한

  ii)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신고 체계 마련

  ii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현장방역훈련 확대 실시

  iv)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캠페인 실시

  v) 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대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

- 또한,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양돈농가에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일반국민)**

ⅰ)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자제

ⅱ) 국내 입국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ⅲ)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금지 등

- **(양돈농가)**

ⅰ) 발생국 여행자제

ⅱ)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ⅲ)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는 일반사료 전환, 부득이 먹이는 경우 열처리 (80℃ 30이상)후 급여

ⅳ)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임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버섯재배기술 공유로 필리핀 소농의 소득증대

- 효율적 원조사업을 위한 부처간 협업, 현지 농업인에게 더 큰 만족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5월 1일부터 2일간 필리핀 보홀에서 필리핀 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 기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필리핀센터는 2018년부터 필리핀 이사벨라, 보홀, 까비떼 주에 버섯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짚, 왕겨, 코코넛 껍질 등 다양한 농업부산물을 활용하여 버섯 재배를 통한 소농의 소득 증대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 본 사업의 대상 지역 중 특히 보홀의 농업인들은 한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단체를 만들어 유명 관광지에서 지역특산품으로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 특히 이번 현장 컨설팅은 농촌진흥청 KOPIA 사업 담당자들과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버섯 재배와 가공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 가공기업 기술 지원과 생산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영세 농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과 유통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 기술 지원을 받은 필리핀 보홀의 로나 씨는 "그동안 종균 증식과 다양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KOPIA와 TASK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버섯 생산량 증대와 가공품의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KOPIA 필리핀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버섯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식품가공 연구원의 컨설팅이 이뤄진 것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중 정부 부처 간 전문성을 살려 현지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협업의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의 이점식 과장은 "이번 버섯 농가 컨설팅은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부처가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개도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원예종묘 국제 품질인증 시스템 현장실증 나서

- 원예종묘 품질인증원 설립 통해 우량묘 생산과 종묘 수출도 가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딸기 등 원예작물의 모종 품질을 국제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원예종묘 국제 품질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실증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 순천대학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한국온실작물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현장실증을 통해 그동안 개발한 딸기 등 영양체로 번식하는 원예작물 품질인증 시스템을 농가현장에 접목하여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딸기, 국화, 장미, 참다래 등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은 우량묘 사용 여부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우량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가에서는 묘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피해가 크고, 묘 공급과정에서 분쟁과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종묘 품질인증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 전남농기원은 지난 2015년부터 순천대학교와 딸기 묘 국제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원예종묘 품질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묘를 국제 규격에 맞춰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서울 시민들 찬사 이어져...

-서울식물원에서 도시민 대상 전사평가회 개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원장 김원영) 지중해관에서 전라남도가 개발한 수국 신품종을 전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4일 서울식물원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국내 농촌진흥기관 최초로 전남에서 육성한 수국 신품종 핑크아리와 그린아리 등 32종이 전시되어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전남도와 서울식물원이 처음 개최하는 수국 신품종 전시회는 품종 홍보는 물론 도시 소비자 선호도 등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브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품종은 전남 도내 재배농가가 우선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식물원은 매일 2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고 있어 전남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26일까지 운영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소장은 “수국 신품종 이외에 앞으로 이어질 차 신품종 및 가공 상품 전시회 등으로 전남의 우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도내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상추 유전자원 분석해 육종소재 발굴한다

- 농촌진흥청, 9일 전주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유전자원센터 보유 상추 유전자원의 활용확대를 위해 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
- 이날 김제 민간육종단지 입주업체, 종자업체 육종가, 각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39개 나라에서 수집된 500 여 자원을 평가한다.
-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적색상추, 특이한 형태의 야생종 자원뿐 아니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선발한 상추 시들음병 저항성 7자원, 무름병 저항성 9자원, 쌉쌀한 맛이 강한 17자원도 선보인다.
- 고함량 기능성 성분과 병저항성을 가진 고품질 상추 육종재료로 평가된 자원들은 육종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다.
- 이를 계기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재배환경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한편, 상추 육종 및 시장 현황에 대해 제일씨드바이오 박종복 대표의 발표를 듣고 최근 국제시장동향과 종자수출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농업연구관은 "이번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가 산학연 합동으로 유전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농업유전자원센터가 평가하고 공개한 우수한 자원들이 종자산업의 육종모본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국 팔도 버섯’ 한자리에서 만나 보세요

- 10~15일 버섯 품종 · 가공품 전시회, 첫날 학술토론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0일(금)부터 15일(수)까지 6일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전북혁신도시)에서 '전국 팔도 버섯 특별전시회'를 연다.
- 면역력 향상과 항암효과를 지닌 식·약용버섯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육성 버섯 품종과 다양한 가공품이 전시된다.
- 또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버섯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버섯 양배추 쌈 등 버섯 요리 사진과 조리 방법을 소개한다.
- 이외에도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 약용버섯을 이용한 버섯 차와 버섯 가공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시음 공간을 마련한다.
- 한편, 10일에는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버섯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버섯수출연구사업단과 함께 학술토론회를 연다.
- 학술토론회에서는 '국내 버섯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 전략' 등 5개 주제 발표가 있다. 앞서 버섯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도 한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에서는 5월 10일을 '버섯데이'로 정해 2009년부터 학술토론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상품 10개 선정

-역량 있는 기업 발굴해 국내 판로 개척수출 지원-

-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 활로 개척에 앞장설 2019국제농업박람회 대표상품 10개를 선정,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2019국제농업박람회 비즈니스 분야 중점사업으로 추진되는 '박람회 대표상품' 지원사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업체의 상품을 선정해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바이어 등과 연결,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 '기업들이 찾아오는 박람회', '찾고 싶은 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과 박람회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 지난 2월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국내 유통·무역 업체 MD(MerchanDiser)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 된 박람회 대표상품은 고흥 해맑은팜, 무안 ㈜하이즈, 영광 ㈜하나식품, 영광황토굴비, 새뜸원, 영광웰빙식품, 해남 땅끝햇살찬, 나주 명성제분, 강진 강진도깨비농장, 장흥 미리얼이다. 앞으로 2019국제농업박람회 대표 상품으로 국내외 바이어를 만나게 된다.

- 특히 B2B상담회 2회 개최, 대표 상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박람회 홍보 판매부스 제공 및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박람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판로 개척 지원 및 해외 수출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2019국제농업박람회의 판촉수입 목표액인 1천733억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에선 17일부터 20일까지 '비즈니스데이'를 별도 운영해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의 만남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전광호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국제농업박람회가 비즈니스 박람회로 한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올해 4회째인 대한민국 대표 농업종합축제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농업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비즈니스 관람객에게는 국내외 우수 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농식품 가공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보성군 회천면에서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농식품 가공농가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날 워크숍은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상품의 소개와 브레인스토밍, 농식품 가공농가의 발전사례를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의 김남욱 대표가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김 대표는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농식품 MD로 활동하면서 쌓은 농식품 트렌드 등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소개했다
- 또한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상품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진행하여, 농업인들의 아이디어와 상품개발 착안점을 공유하며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농업인 자율모임체의 모습을 갖췄다.
- 전남농업기술원 조동호 자원경영과장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가단위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더불어 자율모임체 농업인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모내기철 농기계 빌려드려요”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모내기철을 맞아 농업인 편익 증진과 영농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 사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고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농기계 임대료는 5천 원부터 18만 원까지 기종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는 무상으로 운송해주며, 농기계 조작과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전에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659-4466)하면 된다.
- 여수시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가이거나 수요가 높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고충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여수시, '친환경농업단지 올해 첫 모내기'...'풍년 기원'

- 권오봉 여수시장 우렁이 살포, 승용 이양기 탑승, 농업인 격려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9일 오전 소라면 대곡마을 친환경유기단지에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열고 풍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농어촌공사 김신환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박종탁 농협여수시지부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행사는 크게 우렁이 살포와 모내기로 진행됐다.
- 권 시장은 우렁이를 살포 하고 승용 이양기에 탑승해 모내기를 도왔다. 또 농업인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날 모내기에는 2019년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인 신동진 벼가 사용됐다. 이번에 모내기한 벼는 가을에 수확해 지역 초·중·고교 급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권오봉 여수시장은 "화창한 날씨를 보니 풍년이 예상된다"며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순천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당부

- 보험료 5% 추가 지원...자부담 15%로 낮춰 -

- 순천시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해 이상저온과 폭염,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올해는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 금년도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하는 병해충이 6종(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추가되면서 7종으로 늘었다. 또한 식용벼 뿐 아니라 조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시 관계자는 “최근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벼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순천시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 쌀' 전남 10대 고품질쌀 평가 '최우수상'

- 9년 연속 상위권 수상으로 담양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최고조! -

- 담양군 대표 브랜드인 '대숲맑은 담양 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전남지역본부 등 쌀 관련 6개 전문기관의 평가로 이뤄진다.
- 이번 평가는 시중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식미, 품위, 품종 혼입률, 중금속오염도, 잔류농약검사,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2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 담양군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9년 동안 지역농산물의 고품질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농업의 기본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명품화 단지 조성과 철저한 계약재배에 의한 생산, 농가 교육,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해왔다.
- 유통에서는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15일이 지난 쌀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를 하는 소비자 리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한 시책을 펼쳤다.
- 담양군 농업인과 금성농협(조합장 양용호)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숲맑은 담양쌀'이 도내 간척지 쌀의 특권이었던 전남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에 9년 연속 상위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우리 논에도 우렁이 각시 다녀갔나?

- 모내기철 맞아 새끼우렁이 적기 공급 위해 협의회 개최 -

-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둔 지난 7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벼 친환경재배단지에 새끼우렁이 적기 공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 새끼우렁이는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해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한다. 곡성군에서는 올해 친환경농업단지와 일반단지를 합해 총 3,144ha에 새끼우렁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새끼 우렁이는 피, 물달개비 등을 비롯해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 이상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새끼 우렁이의 사용은 살아 있는 화석생물로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환경을 조성한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조류와 유기물, 모기유충, 식물성 플랑크톤 등을 잡아는 등 잡초의 자생과 해충의 발생을 억제해 생명환경농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새끼우렁이는 농가의 제초제 비용 절감과 자연순환 생명농업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하는 셈이다.
-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곡성군에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업무담당자, 우렁이 생산자 단체, 읍면 직원 등 30명은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새끼우렁이의 월동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농업도 안전제일! 농작업 안전교육 실시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7일 곡성멜론연구회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관 교육장에서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또한 농업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병률은 일반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농작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고 예방 활동 실천을 독려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교육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최영수 교수와 전남농업안전보건센터 심소희 강사를 초빙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운동, 농약안전사용 및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이번 교육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에서는 멜론연구회가 교육 대상자로 선정됐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복숭아 봉지 씌우기 전' 약제 방제 당부

- 봄철 잦은 강우로 병해 발생 증가 우려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본격적인 봉지 씌우기를 앞둔 복숭아 재배 농가에 복숭아순나방, 세균성구멍명 등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복숭아는 5월 중순부터 봉지 씌우기를 한다. 이때 침입한 잿빛곰팡이병, 세균성구멍명, 복숭아순나방 등이 봉지 속에서 왕성하게 번식해 수확기에 큰 피해를 준다.
- 특히, 복숭아 개화기인 4월에 12일 동안 잦은 비와 저온으로 잿빛무늬병(회성병)과 세균 구멍명(천공병) 발병 사례가 점차 확산할 우려가 크다.
- 겨울 날씨가 따뜻해 이전과 비교해 복숭아순나방 등 해충 발생 시기가 다소 빨라져 피해를 주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잿빛무늬병은 주로 수확기 과실에 발병해 피해를 주지만, 개화기에 꽃에 감염되고, 열매가 맺은 가지까지 병이 퍼져 가지가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봉지 씌우기 전에 철저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화순군

화순군, '자연속愛 순미' 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

- 도곡 농협, 2012년부터 품질관리...군, GAP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7일 화순 쌀 '자연속愛 순미'가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전남도는 2003년부터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 쌀을 선발해 품질 관리와 상품 차별화 촉진 등 전남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년 품질 평가를 하고 있다.
- 추천 기준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단일 품종으로 연 매출액 15억 원 이상이고, GAP 인증 시설에서 찧어 20kg 이하 단위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쌀이다. 올해 평가에 12개 시·군이 신청했다.
- 화순 지역에서는 단위 농협들이 자체적으로 10여 종의 브랜드로 쌀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장려상을 받은 '자연속愛 순미'는 도곡 농협 라이스센터(조합장 서병연)의 브랜드로 호농 단일 품종이다.
- 도곡 농협 라이스센터는 2012년부터 호농 단일 품종으로 학교급식용 쌀을 수도권에 공급하면서 계약재배 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다.
- 도곡 농협 라이스센터는 그동안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브랜드 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생산시설 관리를 위해 GAP(우수농산물 관리 시설) 인증, 반입·건조 시설과 가공 시설 분리, 브랜드 벼 냉각저장시설 확보, 곡물 온도 15℃ 관리 기록, 쌀 품질 관리기준 설정과 품질관리 대장을 비치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화순군은 열악한 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2018년 GAP 시설 설치사업 16억5000만 원, 2019년 자동 적재시스템과 저온저장 시설 6억 원, 호퍼와 이동 시설 8억 원 등 사업비 중 절반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한눈에 반한 쌀'전남 10대 브랜드쌀'대상'

- 지난해 이어 2년연속 대상 수상, 전국최고 명품쌀 자리매김 -

- 해남군 옥천농협'한눈에 반한 쌀'이 2019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상품 차별화로 쌀의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쌀 관련 5개 기관과 함께 무작위로 구입한 시료를 대상으로 2개월동안 외관상 품위, 밥맛 평가, 중금속·잔류농약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 해남군 옥천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눈에 반한쌀은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된 우리나라 대표 명품 쌀이다.
- 재배 초기부터 고품질 생산과 품종 혼입 방지를 통한 엄격한 유통관리로 지난 2005년에는 전국 최초 러브미 인증을 받기도 했다.
- 대상 선정으로 전라남도로부터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여받으며 시상금은 쌀 고급화를 위해 품질개선,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홍보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계약부터 쌀 판매까지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명품쌀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영암군, 벼 남은 모 알선창구 운영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육묘 노동력 해소 및 육묘 실패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남거나 부족한 모를 서로 연결해주는「벼 남은 모 알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벼 남은 모 알선창구」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농업인상담소로 연락하면 모가 남은 농가는 모를 폐기하지 않고 실비를 받아 처리할 수 있고, 육묘 실패, 모 부족 농가는 당장 모를 심어야 하는 급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어서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 받고 있다.

- 매년 모내기 때에 운영하고 있는「벼 남은 모 알선창구」는 지난해의 경우 모 판매 및 구입을 희망하는 56농가 7,038상자를 연결해주어 육묘비용 35%정도를 절감해 어려운 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었다.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정찬명소장은 “최근 평년보다 온도가 낮아 육묘상에 모잘록병 및 뜸모 발생이 많으므로 철저한 야간 육묘상 보온관리가 필요하며, 적기에 모내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벼 남은 모 알선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영암군

무안군, 황토랑쌀 전남 10대 브랜드 쌀 10년 연속 선정

- 무안군(군수 김산) 대표 브랜드 쌀인 '황토랑쌀'이 10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에서 예비평가를 거쳐 엄선한 1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밥맛과 품질 등을 평가하고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안전성을 검사하는 등 6개 전문기관이 종합적으로 품질을 평가한다.
- 이번 평가에서 무안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되어 미질뿐만 아니라 밥맛까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엄격한 품종 관리와 선별 과정으로 원료곡 재배와 제품 생산, 관리 모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 농협양곡(주)무안통합미곡종합처리장은 GAP시설에서 도정한'황토랑쌀'을 당일 출고하고 있으며, 2013년 무안군의 지원으로 전문 도정시설과 저장시설 등의 현대화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깊은 신뢰를 쌓고 있어 이번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으로 지역 쌀 산업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됐다.
- 군 관계자는 "황토랑쌀이 전남 대표 브랜드를 넘어 전국 최고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배 농가, 미곡종합처리장과 협력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무안군

함평군, 나비쌀 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쾌거'

- 함평 나비쌀이 4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 지난 2003년 첫 선정 이래 벌써 열두 번째다.
- 9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함평 나비쌀이 전남도 주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번 평가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쌀 관련 5개 기관이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평가단은 시중 판매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 시료를 구입, 쌀 관련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품종 혼입률, 품질, 외관 품위, 식미평가, 중금속잔류농약검사 등을 2개월 간 심사했다.
- 군은 단지별 농가계약을 통한 우수종자보급, 지속적인 농가 재배교육,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등의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4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 수상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품질개량, 판로확보 등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 함평 나비쌀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함평군, 친환경 농업 위해 새끼우렁이 76톤 공급

-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한다.
-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군은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4,205 농가 6,317ha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약 76톤을 지원한다.
- 새끼우렁이 농법은 제초제 대신 새끼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피물달개비 등 일반잡초는 물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논 써레질 직후에 10a당 새끼우렁이 1.2kg(약 1,200마리)을 논에 골고루 뿌려주면 자연순환, 생태계 보존, 제초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 군 관계자는 "새끼우렁이의 경우 원거리 수송 시 폐사위험이 높아 올해는 함평우렁이협의회에서 생산한 것들로만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새끼우렁이 농법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과수채소를 중심으로 한 인증품목 다양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장성군, 농번기 든든한 한끼 '마을공동급식'으로 해결

- 군비 추가로 총 83개 공동급식 희망마을 모두 지원...농업인 가사부담 경감 -

- 장성군이 바쁜 농사철 맞춰 농업인에게 든든한 식사를 지원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 나선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어 식사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장성군은 오는 11월까지 2억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83개 마을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마을공동급식은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중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마을에는 25일분의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반찬배달 사업비 등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급식 일자는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여건이 안 되는 마을은 반찬 배달을 통해 공동급식을 추진할 수 있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장성군은 2015년 29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처음 시작했으며, 농업인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공동급식은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바쁜 농사철 여성농업인들은 농작업에 더해 식사 준비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급식으로 식사 문제가 해결돼 농번기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반응이다.
- 장성군은 올해 전라남도로부터 76개 마을을 배정받았으나, 희망하는 모든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83개의 희망마을을 모두 지원한다.

*출처 : 장성군

신안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

- "친환경벼 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천사라이스센터와 업무협약" -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5월 3일 친환경벼 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업체(RPC)인 천사라이스센터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사항은 암태면 신석리에 위치한 군유지 6,600여평을 RPC설립 목적으로 한정하여 매각한다. 신안군에서 재배된 친환경벼의 경우 운송비를 3년간 100% 지원하고 이후에는 1년마다 운송비를 10%씩 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4월 기준 친환경벼 인증면적은 3,548ha(유기농 1,245, 무농약 2,303)로 생산량은 22,600톤(조곡기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벼에 대한 유통 및 홍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금까지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 대부분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가공 및 유통처리 되었다”며 “금번 업무협약으로 친환경벼 유통구조를 개선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신안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신안군, 농기계 신청하신 분!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 신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신청에서 운반, 회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5월 8일부터 실시했다.
- 그동안 농업인들이 농기계 대여하려면 직접 방문하여 임대하고 고령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등은 상·하차 시 항상 사고 위험이 있으며,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는 신안군민으로 관내에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고 운반 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반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뿐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 우선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중부권(압해,자은,안좌,팔금,암태)을 실시 운영하고 적정성 여부, 농업인의 호응이 좋을 경우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화(010-9769.1880. 061-240-4106)로 49종 362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인 최대 3일까지 예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기계 배달서비스 시행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

8 해외 농업정보

미국 식음료업계, 달콤한 고구마(Sweet Potatoes)에 빠지다

- 고구마(Sweet Potatoes)를 활용한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 Innova Market Insights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전 세계 식음료업계에 고구마를 활용한 식음료 제품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유아용 식품의 활용이 두드러졌는데, 14%로 가장 높았으며 케이크, 패스츄리 등 베이커리 뿐 아니라 식사대용 식품, 심지어 젤리류에도 고구마 활용 제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고구마의 인기 요인은 단연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것이다. 감자, 당근 등 뿌리채소가 식재료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식품업계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고구마는 감자보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섬유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있으며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낮은 저혈당 음식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주효했다는 풀이다.
- 여기에 맛까지 달콤한 고구마는 천연 단맛을 낼 수 있으며, 천연 색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최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식품업계 메가 트렌드와 딱 들어맞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스낵과 빵 등 제과류 뿐 아니라 천연 단맛을 내는 캔디, 젤리, 유아용 식품까지 고구마의 활용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구마 활용 제품도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 천연 색소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연지벌레에서 추출된 원료로 붉은색을 내는 카민(Carmine)은 채식주의자나 비건을 위한 음식에는 사용되지 못하는데, 이를 대신해 고구마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 GNT Global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9%는 인공색소보다 천연 색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급증한 고구마의 인기는 미국 내 고구마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Innova가 미 농무부(USDA)의 통계를 인용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 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무려 37.6%가 증가했다.
- 천연단맛과 천연색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로써 고구마의 활용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 고구마는 스낵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식사대용 다방면에 활용도가 높으며 수출시 진입장벽도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 한국산 고구마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현지입맛에 맞춘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미국 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곡물 선물가격,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보고서 발표 이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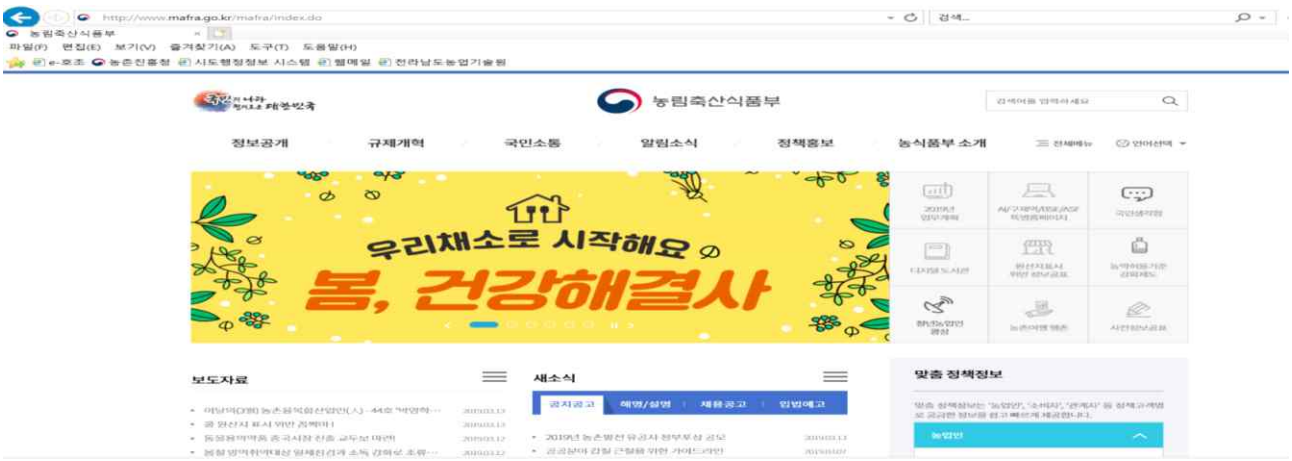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금요일 미 농무부의 월별 수급 보고서 데이터의 약세 압력으로 하락했다. 세계 수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 농무부는 전 세계 2019/20 밀 기말재고량을 사상 최대 규모인 2억9,30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9/20년 말까지의 미국 옥수수 비축량이 미 농부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던 것 나타나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 농무부는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을 4월 3억1,410만 톤에서 3억2,594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의 월간 수급보고서와 중국과의 무역거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2019/20년 대두 생산량은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오일시드 생산 활성화 계획에 힘입은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농식품 빅데이터(법령)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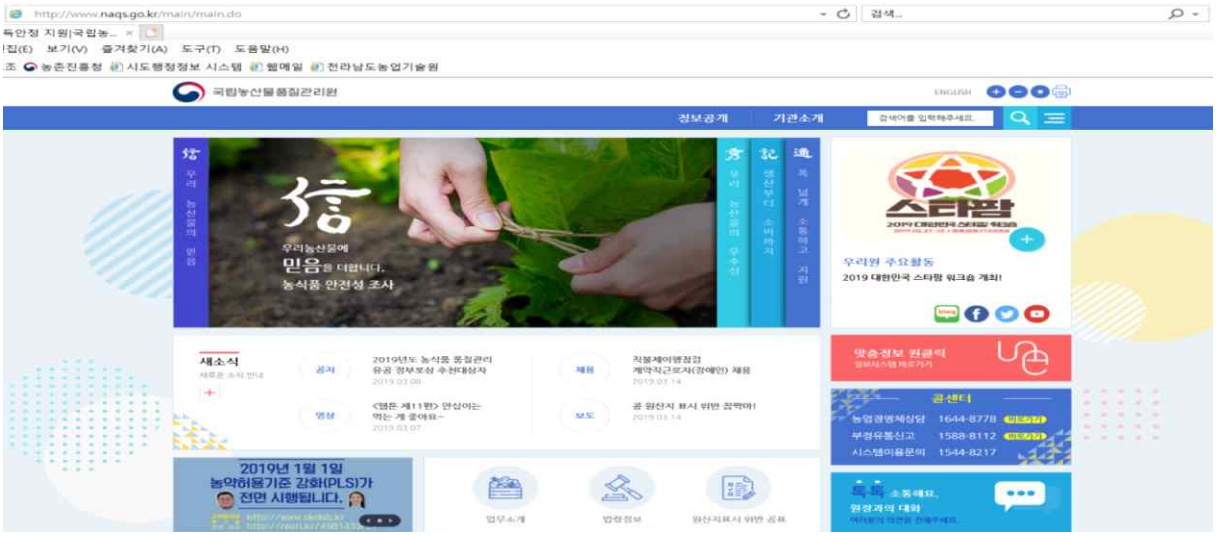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정보공개, 규제개혁, 국민소통, 알림소식, 정책홍보, 농식품부 소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규제개혁에서는 규제개혁과제 현황, 심사중인 규제법안, 규제개선 보도자료, 규제법령정보, 규제혁신 홍보자료,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 정보포털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소통에서는 신고센터, 국민참여, 전자민원, 법령정보, 통계정보, 물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센터에서는 클린신고센터, 부정유통신고,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신고, 안전신문고 등
  - 국민참여에서는 제도개선 및 공정사회 제안,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자공청회 등
  - 법령정보에서는 현행법령, 훈령·예규·고시, 최근제개정법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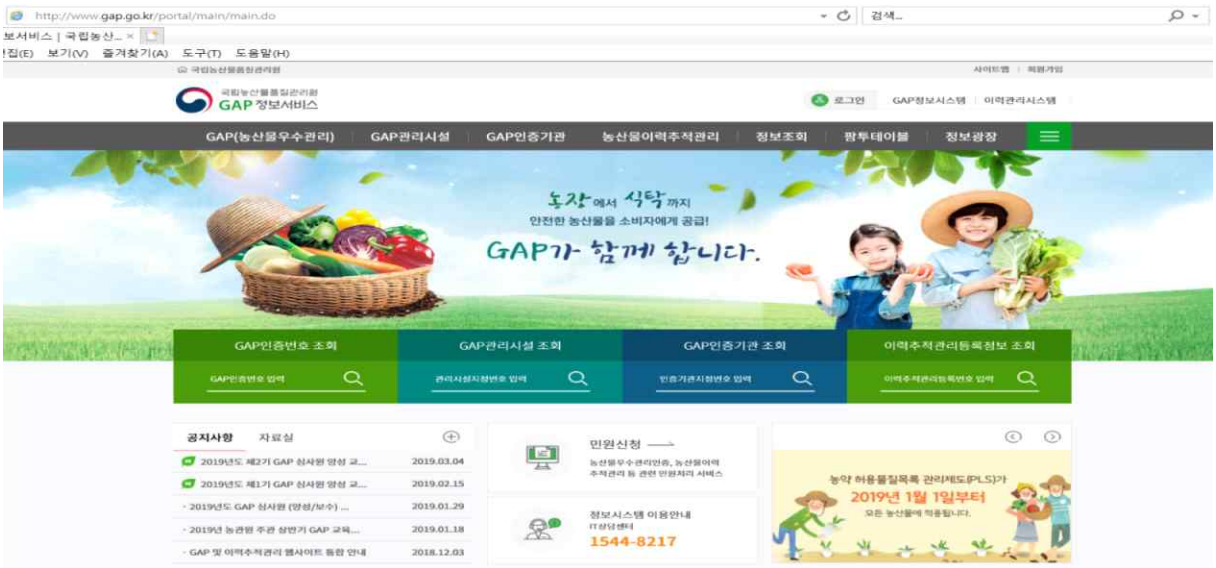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자료에서는 농식품 안전관리,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농가 소득안정 지원,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 업무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각 업무명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부서 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 안전관리의 업무명은 실태조사, 규제조사, 정책지원,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사료검사, 친환경인증기관 관리 등
  -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의 업무명은 원산지표시 관리,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원산지인증제, 부정유통신고, 양곡표시 관리 등
  - 농가 소득안정 지원의 업무명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의 업무명은 우수식품 인증관리, 전통주 교육기관 지정관리, 술 품질인증관리 등
  - 업무지원은 개인정보보호, 인사, 국유재산관리, 세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GAP관리시설, GAP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정보조회, 팜투테이블, 정보광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GAP(농산물우수관리)에서는 제도소개, 인증신청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GAP관리시설에서는 제도소개, 지정신청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GAP인증기관에서는 제도소개, 지정신청 요령,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서는 제도소개,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축제일정

남도 봄꽃 축제로의 초대!

※ 축제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이나 기상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남도청 관광과 061. 286. 5261

4월

4. 6 ~4.20	목포 유달산봄축제
4.26~4.28	순천 문화재달빛야행
4.5~5.19	순천 2019 봄꽃축제
4.12~4.14	나주 영산포홍어축제
4.27~4.28	광양 백운산국사봉철쭉축제
4.18~4.20	구례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날
4.20~4.21	화순 동구리호수공원봄축제
4.20~4.21	화순 고인돌문화축제
4.6~4.7	강진 제2회 군동금곡사벚꽃길나들이
4.19~4.21	강진 제22회 전라병영성축제
4.26~4.27	강진 제16회 영랑문학제
4.19~4.20	해남 흑석산철쭉제
4.4~4.7	영암 왕인문화축제
4.26~5.6	함평 나비대축제
미정	함평 생(生)비빔밥어울림한마당축제
4.19~4.21	영광 곡우사리 영광굴비축제
4.13~4.14	장성 2019 빈센트의 봄
4.6~5.6	완도 청산도슬로걷기축제
4.12~4.21	신안 튤립축제

5월

5.3~5.5	여수 거북선축제
5월 중	순천 낙안민속문화축제
5.3~5.5	나주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5.1~5.6	담양 대나무축제
5.17~5.26	곡성 세계장미축제
5.3~5.5	고흥 우주항공축제
5월 중	고흥 녹동 바다불꽃축제
5.2~5.6	보성 다향대축제
5.3~5.5	보성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3~5.4	화순 백아산 철쭉제
5.11~5.12	화순 운주문화축제
5.3~5.6	장흥 정남진장흥키조개축제
5.3~5.4	영광 찰보리문화축제
5.24~5.26	장성 홍길동축제
5.3~5.6	완도 2019 장보고수산물축제
5.4~5.5	진도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발

청렴한세상 -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3)

10여년 후..

대신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께 드리려고..
.....!

수정아, 선생님은 다른 선물은 필요 없어.
누가준다 해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수정이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선생님에겐 최고의 선물이란다. 고마워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33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